

정시확대 맨 사교육 부작용 소외계층 입학기회 늘린다

교육부

이달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올해 입학생 중 기회균형선발 11.7%

교육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정시 비중 확대와 함께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수험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확대로 사교육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교육을 받기 힘든 교육 취약계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기회균형선발 전형 비율을 상향해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

로 알려졌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원 내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된다.

취약계층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교육분야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공약은 교육의 계층사다리 복원을 위해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특별전형을 반

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여전히 20%를 한 참 밑도는 상태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5754명 중 기회균형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중은 11.7%(4만366명)다. 이는 전년(2018년) 10.4%(3만6063명)보다 1.2%포인트(4303명) 증가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이보다 더 적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3.1%인 반면, 수도권 대학은 9.4%다. 특히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 15개 대학은 이보다 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은 9.29%를 기회균형선발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

이들 대학이 공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나온 기회균형선발전형 선발 비중을 보면, 2020학년도(9.35%), 2021학년도(9.61%)에 소폭 증가에 그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회균형선발 관련 지표를 넣어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목표치인 20%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기회균형선발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의 선발 비중을 정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취약계층의 경우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갈등도 우려된다. 또 자칫 대학 입시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KDI가 발표한 교육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방향(201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정배경이 학력·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OECD 평균인 29.66을 상회하는 42.75이고 지속 상승 추세다. 국가별 한국에 이어 일본(38.7), 영국(34.93), 핀란드(34.60), 미국(25.98), 홍콩(13.74) 순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내시경 검사, 의사 진료 안 거쳤다면 비급여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法 "사후에 필요성 밝혀져도 동일"

의사 권유 없이 환자가 요구해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추후 검사 필요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A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11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실제 증상이 있어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이 4만원 적게 든다고 안내했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과거

용종절제술을 받은 적 있는지, 복통·설사·변비 등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검사를 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여부는 의사의 진료 결과를 토대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환자 개인의 짐작이나 판단으로 검사를 희망한 경우 사후적으로 검사가 진료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밝혀졌더라도 비급여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줬다.

/손현경 기자 son89@

대학가 소식



삼육대학교가 미국 워싱턴DC 지역 병원그룹인 어드벤티스트 헬스케어(AHC)와 간호대학 임상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육대

삼육대 美 AHC 병원그룹과 임상실습 업무협약

삼육대학교가 미국 워싱턴DC 지역 병원그룹인 어드벤티스트 헬스케어(AHC)와 간호대학 임상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육대가 올 7월 재학생 5명을 선발해 AHC에 연수생으로 파견한 후 나온 후속조치로, 연수생들은 약 1달간 AHC에서 임상실습을 이수하며 어학과 업무수행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삼육대 간호대학 학생들은 미국 AHC 산하 병원에서 간호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무중심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임상실습은 매년 겨울방학에 2주간 진행하며 급성환자치료 시설에서 환자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여성 정년 43세로 정한 국정원 '성차별'

행정규칙, 상위법령 반해

여성만 채용하는 직군의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정원 공무원 출신 A씨 등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6년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직렬(전산사식)로 근무했다. 이들은 1999년 전산사식, 안내, 원예 등 6개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의원 면직되기도 했다. 그러다 그해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만 45세가 된 2010년 퇴직했다. A씨의 근무상한 연령은 2008년에 이미 도달했으나 연령 규정 부칙에 따라 2년을 더 근무한 뒤 퇴직했다.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

내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43세로 정하고 있다.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건축물 유지·보수 등)이나 원예 업무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57세로 규정한다.

A씨 등은 해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며 2012년 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규정이 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 등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된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국정원장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손현경 기자

불교 신자, 동국대에 거주 아파트 기부

동국대학교는 지난 6일 오후 이위재 보살(법명 대가심)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한 부동산은 서울시 도봉구 소재 아파트로 2억7000여 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추후 매각을 통해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위재 보살은 장학기금 기부 배경에 대해 "예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비구니 스님의 조언으로 동국대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국대와 특별한 관계는 없으나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라 생각해 기부를 결심했고, 이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관계자들이 감사를 표시하자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인데, 동국대가 이런 일을 해주고 있음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했다.

/한용수 기자

한신대 미국 레드랜즈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

한신대학교(총장 연구홍)가 7일 서울 캠퍼스 장공기념관 소회의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레드랜즈대학교(University of Redlands)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정식에는 레드랜즈대의 랄프 쿨을 총장과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의 제임스 맥도널드(James McDonald) 명예총장, 박응천 레드랜즈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두 대학은 ▲교수와 연구원의 교류 ▲학생과 교직원 교류 ▲공동 연구 활동 ▲학술 자료·간행물 및 기타 정보의 교환 등을 추진한다.

/손현경 기자

상명대 양종훈 교수, 제8회 대한민국실천 대상

상명대학교는 양종훈 교수(사진, 한국사학회)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가족지킴이 대상 시상식에서 미디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실천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가족지킴이 대상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인물과 기관에 수여



하는 상이다. 양 교수는 2018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문화예술형 교육기부 컨설팅단 단장을 역임중이며 사라져가는 한국전통문화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용수 기자